

2015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2

시민됨과 기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I. 문제제기

기부행위는 기부자의 심리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축으로 짚진되었다. 선행된 연구들이 이들 두 차원을 통해 기부행위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왔다는 평가에는 인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독립적이지만은 않은 두 축이 어떻게 충돌하고 상보하는가에 대한 시원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은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2014년 우리나라 기업의 87%가 사회공헌에 참여했다(한동우, 2015). 기업이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 총액은 약 3조원에 이른다(최혜지, 2015). 개인 기부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부금 총 규모는 약 12조 5천 억으로 추산된다(고령환 외, 2015). 적지 않은 규모이나 상대적으로 만족할 성적은 아니다. 2015년 우리나라 사회의 기부성적은 153개국 중 64위에 그쳤다(Charities Aid Foundation, 2015).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경제수준과 양립하기 어려운 간극이 선명하다.

살림 사는 형편이 기부수준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동정심 또는 이타심의 부재를 경제적 역량과 기부성적간 탈각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다. 정 많고 눈물 많은, 나 보다 우리를 우선한다고 믿어 온 우리 자신이 개인주의로 표상되는 서구국가들 보다 낮은 동정심이나 이타심을 갖고 있다고 설득 당해야 할 근거가 없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조건, 이타심 등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기부를 설명해 온 선행연구의 한계를 시사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시원한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사회적 변인에 주목한 선행연구 또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술된 선행연구의 한계는 두 개의 남겨진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개인의 내적 동기가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로 발현되도록 이끄는 추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는 경제력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지지되지 못하고 굴절되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두 과제는 기부를 이해하는데 부르디외의 장 이론과 아비투스 개념이 지닌 유용성을 짐작케 한다. 연구자는 부르디외의 이론에 의지해 시민공동체는 장의 영역에 해당하며, 기부는 시민공동체의 아비투스로 가정한다. 제기된 가정에 토대해 이 연구는 시민됨과 기부행위 사이의 연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됨과 기부행위의 양태를 살펴보고, 시민됨과 기부행위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노인과 비노인 인구집단에서 시민됨과 기부행위의 양태, 시민됨과 기부행위 사이의 영향관계가 동일하게 재현되는가를 비교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르디외의 장 이론과 시민공동체

1) 장

부르디외의 장이론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회학적 기획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사회적 장은 현대사회의 진화과정에서 분화된 사회적 영역을 뜻한다. 사회적 공간으로서 장은 고유한 법칙, 차별적 이익과 관심을 갖는 자율적인 소세계이다(Bourdieu, 1994).

사회적 장이 지니는 이론적 중요성은 사회적 장이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사이의 관계를 가교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적 계급을 비롯한 외부 구조의 영향력은 사회적 장을 통해 재해석된다(Bourdieu, 1984, 김천기, 2007 재인용). 사회적 장의 매개적 성격은 장의 자율성에 기초한다. 자율성은 장의 고유성을 반영한 차별적 규범과 기능을 장이 소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장 내부 공간에서의 위치에 대한 사유는 장 이론의 중심 주제이다. 장의 공간 안에서 행위자는 하나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며, 위치는 장에 속한 행위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동력으로 기능한다. 위치는 행위자의 정당성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장 내부의 지위공간의 지배에 집착한다(Bourdieu, 1984).

장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장은 자본의 분포가 위치로 구조화된 공간이다. 장의 구조는 자본을 향한 행위자들 사이의 역동관계나, 투쟁의 역사를 투영한다. 둘째, 장은 투쟁의 공간이다. 기득권을 무기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무력화 하려는 기층 지배자와 진입 장벽을 와해하고 장으로의 착륙을 이루어내려는 신입자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장의 본질이다. 셋째, 장의 행위자들은 선취물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형성하고 있다. 투쟁하고 획득해야 할 선취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며 이를 재생산한다(Bourdieu, 1984).

2) 장으로서 시민공동체

시민공동체는 시공간적 동시성을 지닌 행위자에 의해 시민됨의 문화를 규정하고 재생산하는 독자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는 시민됨의 문화를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기구이다. 시민공동체는 '위치가 구조화된 공간'이라는 장의 특성을 갖는다. 시민이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으나 행위자마다 시민공동체 내에서 점하는 위치는 상이하다. 미국사회의 시민공동체 내에서 백인의 문화자본을 소유한 시민과 유색인의 문화자본을 지닌 시민 사이에 문화자본의 차이가 생산해 낸 지위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치가 구조화된 공간이라는 장의 첫 번째 특성을 시민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공동체는 투쟁의 장이다. 시민의 권리는 누구에겐 지켜내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겐 획득해야 할 권

리이다. 어떤 조건을 지닌 이주민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해묵은 정치적 쟁점이다. 선주민은 시민으로 누려온 기득권이 다른 행위자에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이주민은 시민의 권리를 획득하고 시민공동체로 편입되기 위해 투쟁을 기꺼이 수용한다. 시민공동체 내에서 투쟁하는 행위자들은 시민으로 향유하는 권리와 시민문화의 가치를 규정하고 재생산한다. 장으로서 시민공동체는 기부행위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가교한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 등 개인의 미시적 속성은 기부문화라는 거시적 구조에 온전히 투영되기 보다 시민공동체라는 매개를 거치면서 굴절되게 된다.

2.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과 기부

1) 아비투스

장에서의 행동은 아비투스의 무의식적 발현으로 설명된다. 아비투스는 장의 구조가 신체화 것이며 동시에 장의 규범과 구조를 규정한다(Bourdieu, 1994).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의 개념을 통해 행동을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표현으로 상정한 공리주의에 반기하고자 했다. 더불어 장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 계급적 산물로 등치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해 마르크스의 사유를 극복하고자 했다(김천기, 2007).

아비투스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유용성을 갖는다. 우선, 아비투스는 행위자의 행동이 외부 조건에 의해 반사적으로 형성되는 기계적 산물이라는 선행 이론의 결함을 극복하게 한다. 또한 아비투스는 행동이 기회와 물질적 이익을 중심에 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의 결과라는 공리주의적 이해를 초월하게 한다. 오히려 장에서 형성된 행위자의 아비투스는 내재된 합리적 준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동은 이 준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Bonnewitz, 2000, 김천기, 2007 재인용).

장에서 형성된 아비투스는 사회화를 통해 후대에 전달되며 장의 문화와 규범으로 견고해 진다. 특정 행동은 일부 장만이 향유하는 문화로 인식되며, 개인은 이들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자신을 다른 장에 속한 개인과 구별 지으려 한다.

2) 시민공동체의 아비투스로서 기부

(1) 시민됨의 정의

현대적 의미의 시민은 국가를 구성하며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한다(홍윤기, 2002, 정병기, 2013 재인용). 홉스의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시민은 도시 거주라는 고전적 전제를 해제하고 인간이라는 조건만으로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존재로 변환된다(홍윤기, 2002, 정병기, 2013 재인용).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은 공민적 권리에 버리 해 국가를 상대로 정치, 경제, 사회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개인으로 정의된다(이동수, 2008).

시민됨은 자유권과 평등권, 정치적 권리, 그리고 사회적 권리에 대한 자의식과 이에 기반한 실천적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됨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나 원자화된 개인에 기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됨은 관계로 구성된 공동체 내에서 발아하고 성장한다(김동춘, 2013).

시민됨은 공동체에 내장된 선형적 조건이 아니다. 시민으로 처우받고 시민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집단의 투쟁과정에서 형성되고 성숙한다. 따라서 시민됨은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공동체 지향성을 내포한다. 시민됨은 개인 또는 집단이 시민의 경계내로 편입되고 시민으로 인정됨을 궁극으로 하는 방어적 투쟁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차별 및 억압대상에 대한 공감과 일체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으로 구체화 되는 '확대된 자아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김동춘, 2013).

(2) 시민됨의 요소

시민됨의 개념은 시민이 되기 위한 하위 요소를 시사한다. 우선, 시민은 사적 이익을 초월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덕이 요구된다. 또한 자신이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인식하는 시민권리 의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끝으로, 권리의식에 기반한 시민으로서의 실천적 행위에 가담할 때 진정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가. 시민덕목

"시민은 도덕적 신분이다"라는 바버(Barber, 1984)의 사유는 시민됨은 기대되는 도덕적 준거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시민을 이기를 넘어 공공성을 담지하는 덕을 갖춘 개인으로 설명한 루소의 정의는 시민됨의 덕목이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박의경, 2011 재인용).

나. 시민권리

고대사회에서 시민은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로 공론참여의 권리를 지녔다. 부르주아와 시민의 중복성이 강하던 시기에 시민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중시했다. 시민권의 발달을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단계화한 마샬의 주장은 시민됨의 한 차원으로서 시민권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 시민참여

참여는 공론장의 논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를 시민으로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시민 개념에서부터 강조된다. 즉 공적 결정에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 서는 것이 시민의 본질이다. 특히 루소는 시민을 결정짓는 요소로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강조한다(박의경, 2011). 이처럼 자발적 결사는 시민됨의 조건이자 시민됨을 방증하는 지표이다. 시민권과 시민덕목이 인식적 차원, 즉 시민됨의 영혼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시민참여는 외형화된 시민됨 즉 시민됨의 신체이다.

(3) 아비투스로서 기부

시민공동체는 자신의 장과 다른 장을 구분하는 고유한 문화와 규범을 규정하고 재생산한다. 시민으로서 행위자는 시민공동체가 규정한 문화를 내재화하고,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내재화된 아비투스에 준거해 행동하게 된다. 시민됨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 실천적 행위, 사익을 초월한 공공선 추구의 확대된 자의식을 포괄한다. 따라서 시민공동체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시민의 덕을 성품으로 승화하고, 참여를 통해 이를 발현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 또는 시민다운 것으로 규정한다.

기부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기초한다.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기 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염두에 둔 공공선이라는 지향점을 갖는다. 기부는 특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자아의식의 확장을 전제로 한다. 그와 같은 점에서 기부는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참여적 행위이다.

기부는 시민공동체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질적 속성을 강화한다. 따라서 시민공동체는 기부를 시민됨의 일부로 규범화하고 장려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기부문화를 전파한다. 시민의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는 기부를 시민다움의 일부로 학습하고 기부문화에 투항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된다. 시민은 기부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 또는 조건으로 내재화한다. 사회화를 통해 기부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향되며 아비투스로서 기부는 세대를 너머 전승되고 지속된다. 이처럼 기부는 시민공동체의 장에서 행위자의 무의식에 내재화된 아비투스로 이해될 수 있다.

3. 기부연구의 동향

기부를 주제로 한 그간의 연구는 ‘왜’와 ‘어떻게’를 중심으로 수렴된다. ‘왜’에 집중한 연구들은 기부의 내적, 외적 동기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한편 ‘어떻게’에 천착한 연구들은 기부행위의 양태, 즉 어떻게 기부하는가를 이해하려는 부류와 기부활성화, 즉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부류로 분리된다.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주제를 고려해 ‘왜’에 천착해 온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1) 기부의 내적 동기

이웃에 대한 동정심, 이타심은 기부를 포함한 자선행위의 결정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도덕적 의무로서 사회적 책임감은 기부 의사와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황창순, 강철희, 2002). 기부를 통한 행복감, 즉 죄의식의 완화, 좋은 사람이라는 기분 또한 기부행동을 촉진한다(강철희 외, 2012).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인 사회적 신뢰는 정보공유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증진한다(최혜지 외, 2015).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강철희 외, 2012).

2) 기부의 외적 동기 및 사회적 요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낙관적으로 인식할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나 경제적 상태와 기부 가능성은 비선형적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도 공존한다(강철희 외, 2011).

기부의 사회적 요인은 기부관련 제도, 기부문화 등을 포괄한다. 세제혜택을 포함한 기부정책은 기부 의도를 결정하며, 한 사회의 기부문화 역시 기부 의도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타인으로부터의 기부요청 등 직접적인 외부압력이 기부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용규, 송용찬, 2012).

Ⅲ. 연구방법론

1.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2011년 9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년 원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매년 이루어지며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를 묻는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핵심 모듈은 매년 조사되며,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모듈은 세계사회조사프로그램에 가입된 45여개 회원국의 공동질문으로 이루어져있다. East Asian Social Survey(EASS) 모듈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공동 개발한 질문으로 구성되며 격년주기로 조사된다. 특별주제 모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특별주제를 매년 바꾸어가며 조사한다. 시민성과 기부에 관한 질문은 ISSP 모듈에 포함되며 2004년, 2011년, 2014년에 조사에 포함되었다. 2014년 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이나 공중에 미개방된 상태라 접근 가능한 최신 자료인 2011년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했다.

2. 표본 및 자료수집

KGSS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며 다단계지역집락표본 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통해 표집한다(KGSS 사업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2015년 8월 31일 내려 받음). 자료는 200여명의 훈련된 유급면접원이 응답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대면 면접을 통해 수집한다. 2011년 조사는 1,52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 연구는 20세 이상의 남녀 1,48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3. 측정도구

1) 시민됨

(1) 시민덕목

시민의 덕목은 시민과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세 개의 질문을 이용해 측정했다. KGSS는 열 개의 질문을 통해 시민과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이들 열 개 문항은 세 개의 공통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공통요인 중 시민의 책임에 관한 하나의 공통요인에 적재된 세 개의 문항을 이용해 시민덕목을 측정했다.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시민덕목을 의미한다. 세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계수가 0.62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1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0.82
이 세상은 책임감 있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0.71
사람들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0.34
Eigen Value	1.77

〈표 1〉 시민의 덕목 요인분석

(2) 시민권리

시민권리의 인식은 ISSP 모듈에서 시민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여섯 개의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민주국가에서 개인이 지닌 다음의 권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물었으며,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여섯 개의 문항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¹ eigen value가 3.50인 하나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문항은 요인계수가 최소 0.52에서 최대 0.85로 추출된 공통요인에 성공적으로 적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시민권리 의식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가 0.85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보였다.

	요인
적정생활수준유지	0.60
소수자권리보호	0.62
평등한 대우	0.77
정책에 여론을 반영	0.85
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	0.85
시민불복종운동 참가	0.52
Eigen Value	3.50

〈표 2〉 시민권리의 요인분석 결과

(3)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선거와 집단적 행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통해 측정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서명운동, 거리시위, 시민단체 후원 여부를 물어, 참여에 1점을, 비참여에 0점을 부여하는 평정방식으로 점수화 했다. 2010 지방선거 참여율은 20대가 44.5%로 최저, 60대가 80.5%로 최고를 보였다. 20대부터 60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60대를 정점으로 70대와 80대에서 조금씩 감소했으나 80대도 67.4%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서명은 20대가 42.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해 80대는 8.7%로 최저치를 보였다. 거리시위는 20대가 4.5%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50대가 10.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리시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70대와 80대가 각각 5.7%와 6.5%로 20대 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은 30대와 40대가 각각 9.2%와 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70대와 80대가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선거	참여	44.5(89)	55.1(185)	69.1(253)	78.3(195)	80.5(132)	77.2(95)	67.4(31)
	비참여	55.5(111)	44.9(151)	30.9(113)	21.7(54)	19.5(32)	22.8(28)	32.6(15)
서명	참여	42.5(85)	41.1(138)	41.8(153)	30.1(75)	26.8(44)	13.8(17)	8.7(4)
	비참여	57.5(115)	58.9(198)	58.2(213)	69.9(174)	73.2(120)	86.2(106)	91.3(42)
거리시위	참여	4.5(9)	7.7(26)	8.7(32)	10.0(25)	6.1(10)	5.7(7)	6.5(3)
	비참여	95.5(191)	92.3(310)	91.3(334)	90.0(224)	93.9(154)	94.3(116)	93.5(43)
단체후원	참여	3.5(7)	9.2(31)	9.0(33)	7.2(18)	3.0(5)	2.4(3)	0.0(0)
	비참여	96.5(193)	90.8(305)	91.0(333)	92.8(231)	97.0(159)	97.6(120)	100.0(46)

〈표 3〉 연령대별 시민참여율

2) 기부행위

기부행위는 '나는 정부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선적 이유로 돈을 기부하곤 한다'의 한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기부행위 수준을 의미한다.

4. 분석대상자

1,483명 분석대상자의 44.5%(n=661)는 남성, 55.5%(n=823)는 여성이 차지했다. 연령은 최소 20세에서 최대 94세로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46.9세로 나타났다. 20대가 13.5%(n=200), 30대가 22.6%(n=336), 40대가 24.7%(n=366), 50대가 16.8%(n=249), 60대가 11.1%(n=19.2%), 70대가 8.3%(n=123), 80대 이상이 3.1%(n=46)로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다. 교육적 수준은 무학, 서당수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4%(n=208), 중학교 졸업이 7.8%(n=116), 고등학교 졸업이 29.1%(n=432),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49.1%(n=7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유배우자가 68.7%(n=1,02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별이 10.0%(n=148), 이혼이 3.4%(n=51)로 나타났다.

5. 분석방법

분석은 기술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통계분석은 SAS를 사용했다.

IV. 연구결과

1. 시민됨과 기부실태

시민덕목은 최소 8점에서 최대 1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3.34(sd=1.44)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덕목의 이론적 범주인 3에서 15의 9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시민권리는 최소 6점에서 최대 42점의 넓은 범주를 보였다. 시민권리의 수준은 평균 34.46(sd=6.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민참여는 최소 0에서 최대 4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1.15(sd=0.91)로 최대값의 25%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N	M(SD)	최소값	최대값
시민덕목	1,483	13.34(1.44)	8.00	15.00
시민권리	1,433	34.46(6.66)	6.00	42.00
시민참여	1,484	1.14(0.91)	0.00	4.00
기부행위	1,483	3.37(1.01)	1.00	5.00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시민됨과 기부행위의 수준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시민덕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다 60대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대가 12.67로 가장 낮은 수준을, 60대가 13.6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민권리는 연령에 따라 일정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다. 70대가 33.3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80대는 35.7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민참여의 정도는 80대가 0.83, 20대가 0.9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40대와 50대가 각각 1.29와 1.2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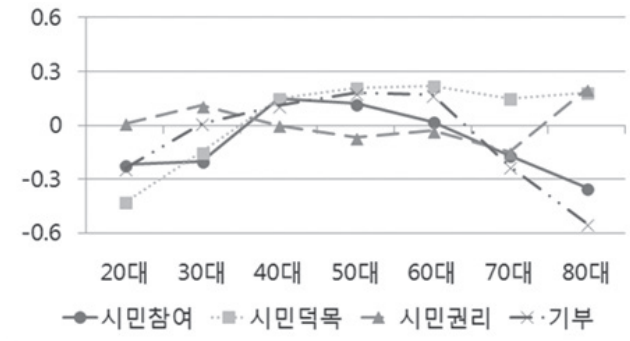
기부의 수준은 80대가 2.80으로 가장 낮았으며 50대가 3.5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 기부의 수준은 20대부터 50대까지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다 50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시민덕목	12.67	13.09	13.53	13.62	13.64	13.54	13.58
시민권리	34.51	35.19	34.41	33.97	34.19	33.39	35.76
시민참여	0.95	1.13	1.29	1.26	1.16	0.99	0.83
기부	3.11	3.37	3.47	3.54	3.53	3.12	2.80

〈표 5〉 연령대별 시민됨과 기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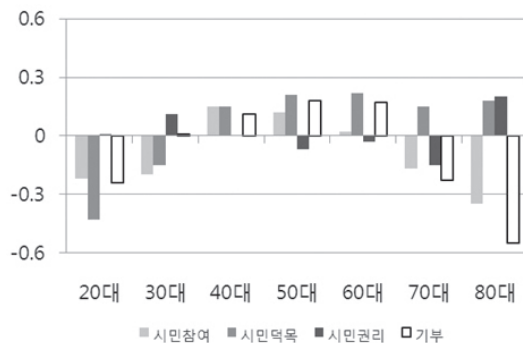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 기부수준을 Z값으로 표준화해 연령대별로 위치시킨 좌표는 〈그림 1〉와 같다. 시민덕목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민참여는 40대를 기점으로, 기부는

60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민권리는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80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 시민됨과 기부의 연령대별 추이

표준화 값을 이용해 연령대별로 시민됨의 세 차원과 기부를 비교해 보았다. 20대는 전반적으로 시민됨과 기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시민덕목과 시민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30대는 시민참여와 시민덕목은 평균 보다 낮은 반면 시민권리와 기부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40대는 모든 차원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시민참여와 시민덕목이 다른 차원보다 높았다. 50대는 시민권리는 전체평균 보다 낮은 반면 시민참여, 시민덕목, 기부는 전체평균 보다 높았다. 시민덕목과 기부가 다른 차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60대 역시 시민권리만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시민덕목과 기부가 다른 차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대는 시민덕목만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민참여, 시민권리, 기부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80대는 시민덕목과 시민권리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민참여와 기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2〉 연령대별 시민참여, 시민덕목, 시민권리, 기부 비교

2. 노인과 비노인간 시민됨과 기부의 차이

65세를 기준으로 노인과 비노인으로 구분해 두 집단 사이의 시민됨과 기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노인의 시민덕목은 13.25, 노인의 시민덕목은 13.62로 시민덕목은 노인이 비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3.56, p=0.00$). 시민권리는 비노인이 34.43, 노인이 34.31로 비노인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t=0.23, p=0.82$). 시민참여는 비노인이 1.15, 노인이 1.03로 비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2.44, p=0.15$). 기부는 비노인이 3.38, 노인이 3.22로 비노인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t=2.11, p=0.36$).

구분		M(sd)	t	p
시민덕목	비노인	13.25(1.47)	-3.58	.000
	노인	13.62(1.41)		
시민권리	비노인	34.43(6.81)	0.23	.816
	노인	34.31(6.04)		
시민참여	비노인	1.15(0.94)	2.44	.015
	노인	1.02(0.73)		
기부	비노인	3.38(0.99)	2.11	.036
	노인	3.22(1.12)		

〈표 6〉 노인과 비노인 사이의 시민됨과 기부의 차이

3. 통제변인과 시민됨 사이의 상관관계

통제변인과 시민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민덕목은 연령, 이타심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리는 이타심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시민권리 의식이 높을수록 이타심도 높았다. 시민참여는 경제적 만족도와는 부적적으로, 이타심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 만족도는 낮을수록, 이타심은 높을수록 시민참여 활동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됨의 세 요소 사이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민덕목이 높을수록 시민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았으며, 시민참여 활동도 증가했다. 시민권리와 시민참여 사이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시민권리 의식이 높을수록 시민참여 활동도 증가했다.

p<.05* p<.01** p<.001***

	연령	계층귀속	경제만족	이타심	사회신뢰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
연령	1							
계층귀속	0.07**	1						
경제만족	0.09***	-0.10***	1					
이타심	0.22***	0.00	-0.01	1				
사회신뢰	0.09***	0.20***	-0.07**	0.04	1			
시민덕목	0.22***	-0.01	-0.01	0.40***	-0.03	1		
시민권리	-0.02	0.01	0.02	0.17***	-0.01	0.25***	1	
시민참여	0.04	-0.00	-0.05*	0.15***	0.00	0.24***	0.13***	1

〈표 7〉 시민됨, 기부, 통제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4. 시민됨과 기부행위의 영향관계

통제변수만이 투입된 모형은 기부수준의 7%를 설명했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연령($t=2.03$, $b=0.00$), 대졸($t=5.18$, $b=0.31$), 경제적 만족도($t=5.45$, $b=0.12$), 이타심($t=5.52$, $b=0.16$)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계층귀속감($t=-3.31$, $b=-0.02$)은 기부수준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됨이 추가된 모형은 기부의 14%를 설명했으며, 시민됨이 추가됨에 따라 기부에 대한 설명력이 7% 증가했다. 시민됨 중에는 시민덕목($t=7.42$, $b=0.15$)과 시민참여($t=5.94$, $b=0.17$)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기부를 설명하는 변수들로 주목해 온 교육수준, 경제적 만족감, 이타심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시민됨에 대한 기부의 설명력은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시민됨이 추가됨에 따라 통제변수 중에는 대졸($t=4.34$, $b=0.25$), 계층귀속감($t=-2.31$, $b=-0.01$), 경제적 만족도($t=4.87$, $b=0.12$)만이 기부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민덕목의 수준이 높고, 시민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졸업학력을 지니고, 자신이 속한 계층이 낮다고 인식하고,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부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의미한다. 소속된 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기부 의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시민됨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귀속된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기부수준이 높아졌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본 상대적 영향력은 시민덕목이 0.21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참여가 0.15로 뒤를 이었다.

	b	β	t	vif	b	β	t	vif
(상수)	2.81		16.58***		1.10		4.09***	
연령	0.00	0.06	2.03*	1.44	0.00	0.05	1.55	1.46
대졸더미	0.31	0.15	5.18***	1.40	0.25	0.13	4.34***	1.41
계층귀속	-0.02	-0.09	-3.31***	1.06	-0.01	-0.06	-2.31*	1.04
경제만족	0.12	0.14	5.45***	1.03	0.11	0.12	4.87***	1.05
이타심	0.16	0.14	5.52***	1.06	0.04	0.03	1.28	1.24
사회신뢰	0.00	0.02	0.91	1.05	0.00	0.01	0.52	1.02
남성더미	-0.02	-0.01	-0.45	1.03	-0.10	-0.05	-1.92	1.03
시민덕목					0.15	0.21	7.42***	1.33
시민권리					0.00	0.02	0.77	1.10
시민참여					0.17	0.15	5.94***	1.10
F(df)	15.08***(7,1475)				22.34***(10,1421)			
R ²	0.07				0.14			

〈표 8〉 시민됨과 기부의 영향관계 : 전체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제변수만이 투입된 모형은 기부수준의 17%를 설명했다.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t=-3.82$, $b=-0.04$), 경제적 만족도($t=3.62$, $b=0.21$), 계층 귀속감($t=-2.93$, $b=-0.18$)만이 기부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기부수준이 증가했다. 시민됨을 추가한 모형은 기부수준의 20%를 설명했으며,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가 추가됨에 따라 기부수준의 설명분산은 3% 증가했다.

시민됨을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는 시민덕목만이 기부수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86$, $b=0.17$). 전 연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노인은 시민참여가 기부수준을 유의미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됨이 추가된 조건에서도 통제변수 중 연령, 경제적 만족도, 계층귀속감은 기부수준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기부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연령, 시민덕목과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계층 귀속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b	β	t	vif	b	β	t	vif
(상수)	6.58		7.27***		4.30		3.82***	
연령	-0.04	-0.23	-3.82***	1.05	-0.04	-0.24	-3.70***	1.07
대졸더미	0.35	0.10	1.60	1.14	0.23	0.07	1.07	1.15
계층귀속	-0.01	-0.18	-2.93***	1.05	-0.02	-0.16	-2.58**	1.02
경제만족	0.21	0.22	3.62***	1.02	0.19	-0.21	3.22**	1.07
이타심	0.08	0.06	1.06	1.01	-0.02	-0.02	-0.28	1.25
사회신뢰	0.00	0.04	0.64	1.06	-0.00	-0.01	-0.09	1.03
남성더미	0.12	0.05	0.84	1.18	-0.02	-0.01	-0.14	1.19
시민덕목					0.17	0.21	2.86**	1.37
시민권리					0.01	0.07	1.04	1.13
시민참여					0.06	0.04	0.67	1.14
F(df)	7.02***(7,238)				5.22***(10,209)			
R ²	0.17				0.20			

〈표 9〉 시민됨과 기부의 영향관계 : 65세 이상

V. 결론

이 연구는 시민됨을 통해 기부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노인과 비노인 사이에 시민됨과 기부의 영향관계가 유사하게 재현되는가를 탐색하는 부차적 목적을 갖는다. 특히 연구자는 부르디외의 장의 이론과 아비투스 개념을 빌어, 기부를 시민공동체라는 장의 아비투스로 가정하고 연구를 전개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가정에 토대함으로써, 첫째, 경제적 만족도, 이타심 등의 미시적 특성과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둘째, 미시적 특성이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결과, 시민덕목은 40대 이후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민참여는 40대에 정점을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역 U자형을 보였다. 시민권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부는 60대까지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층에서 시민참여와 시민덕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저항정신이 시민됨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자아성찰이 요구된다는 논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김동춘, 2013)

노인과 비노인 사이에 시민됨과 기부의 집단차이는 시민덕목, 시민참여, 기부에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노인은 비노인보다 시민덕목은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시민참여와 기부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인의 시민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자유로운 외부활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민됨, 특히 시민덕목과 시민참여는 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시민덕목은 기부에 대한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시민덕목은 기부를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드러났다.

경제적 만족도, 계층 귀속감 등 내적 동기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덕목과 시민참여가 기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며, 시민덕목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부를 개인의 경제적 상황, 이타적 행위에 따른 자위감 등의 보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 조망한 선행연구의 이해와 달리 기부는 시민공동체의 문화로 내재화된 아비투스임을 시사한다. 시민덕목, 시민권리, 시민참여 등 시민됨이 모형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와 계층귀속감의 영향력이 감소한 결과는 기부와 관련된 미시적 차원의 속성이 기부라는 사회적 행위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시민공동체라는 장이 미시적 차원 즉 하부의 속성을 굴절하기 때문이라는 장의 이론을 빌어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철희, 조승중, 안성호, 2011. "저소득층의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 88-120
- 강철희, 최명민, 김수연, 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 고경환, 이연희, 김정현, 오미애, 강지원, 진재현, 함선유, 2015. 『나눔실태 2014.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김동춘, 2013. "시민권과 시민성". 서강인문논총, 37, 5-46
- 김천기, 2007.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 이론의 적용가능성과 난점", 교육사회학연구, 17(3), 79-99.
- 박의경, 2011. "대중에서 시민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5), 81-100
- 서관모, 2001. "한국의 시민사회 담론의 문제점들". 사회과학연구, 18(2), 99-117
- 이동수, 2008.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42(2), 5-23
- 이용규 송용찬, 2012.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9, 189-211
- 장은주, 정상호, 신진욱, 이병천, 이양수, 조홍식, 박영선, 정태석, 홍윤기, 전상직, 이담인, 2014. "시민의 탄생과 진화". 시민과 세계, 24, 276-310
- 정병기, 2013. "한국 시민운동의 흐름과 시민성", 진보평론, 55, 14-31
- 최혜지, 이소영, 정순돌, 2015.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우울의 최적모형 탐색과 영향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 149-175
- 최혜지, 2015. "한국기업의 기부금 변화추이". 기빙코리아 발표자료집, 서울 : 아름다운 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available at : www.kosssda.or.kr
- 한동우, 2015. "한국 기업사회공헌 실태조사 : 한국기업사회공헌 10년", 기빙코리아 발표자료집, 서울 : 아름다운 재단
- 홍윤기, 2002. "시민민주주의론", 시민과 사회, 1, 15-37
- 황창순, 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 Bourdieu, P., 1984. 『사회학의 문제들』, 신미경 역(2004). 서울 : 동문선
- Bourdieu, P., 1994. 『실천이성』, 김용원역(2005). 서울 : 동문선
- Charities Aid Foundation, 2015. CAF World Giving Index 2015, available at : www.cafonline.org.